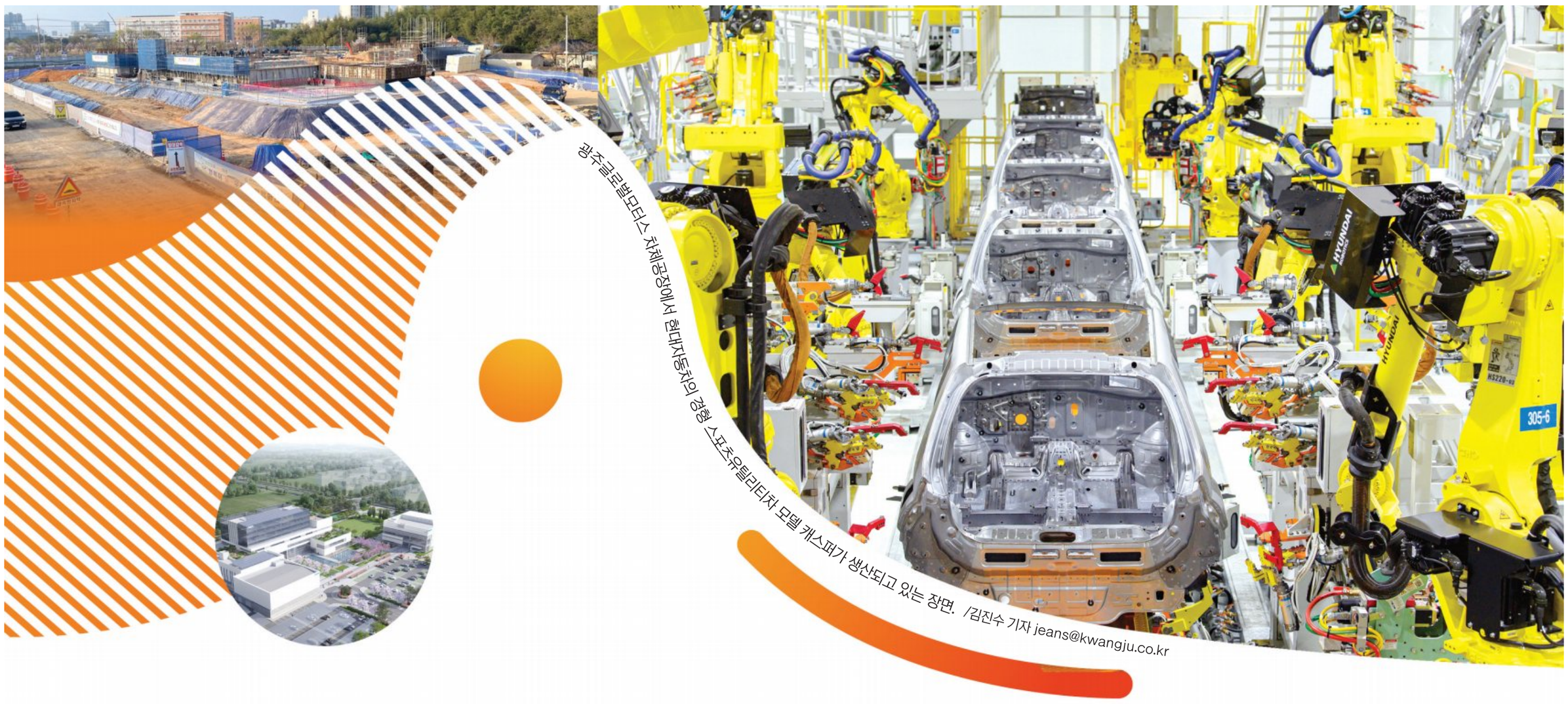
‘정치 1번지’ 광주, 청년 돌아오는 ‘경제 1번지’로



광주글로벌모터스 차체공장에서 현대자동차의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 모델 캐스퍼가 생산되고 있는 장면.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는 ‘정치 1번지’라는 이미지를 벗어 던지고, 청년이 돌아오는 ‘경제 1번지’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그 중심에는 AI(인공지능) 중심도시와 광주형 일자리로 대표되는 자동차 산업 등이 자리 잡고 있다. 광주시는 민선 7기 들어 ‘인공지능 광주시대’를 여는 등 지역 미래발전을 위한 교두보를 일부 확보했지만, 여전히 인구와 경제, 산업 등 전반에 걸쳐 충청권에도 밀리는 등 최악의 낙후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지역 미래발전을 위한 핵심과제와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새 정부 인수위원회 등을 상대로 국정과제 채택 등을 호소하고 있다. 광주의 100년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선점해야 할 핵심사업 등을 제시한다.

인공지능·광주형 일자리 시즌 2 등 미래 산업 선점해야
미래도시 도약 위해 도심 속 광주 군 공항 이전 등 시급

◇ **대한민국 인공지능 대표 도시 광주**=올해로 3년째를 맞은 광주시의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집적단지 조성사업은 2019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지난해 11월 첨단 3지구 내에 인공지능 사업의 핵심 시설인 AI집적단지와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착공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AI집적단지 조성으로 압축되는 인공지능 대표 도시 사업은 크게 1·2단계로 나뉜다. 1단계는 집적단지와 데이터 센터를 비롯한 인공지능 핵심 인프라 구축 등이고, 2단계는 1단계 사업을 기반으로 AI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1단계 사업은 세계적 수준의 AI데이터센터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등 성공적이라는 평가다.

광주시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과학기술정통부는 다음 단계인 2단계 사업의 성공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물론 사업 성공의 전제는 새 정부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다. 광주 외에도 경기도 등 전국 자치단체들이 미래산업인 AI산업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가 계획 중인 2단계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32년까지 10년이며, 소요 예산은 9조 6815억원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를 통해 AI반도체 특화단지 조성(5조원), 국가산업별 인공지능사업화(1조 8515억원), AI데이터센터-광주과기원 연계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1조 2000억원), AI영재고 설립(1300억원), AI메타버스 융합도시 조성 및 문화콘텐츠 개발 생산유통 전략적 지원(1조 5000억원) 등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이 현실화하면 광주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실리콘 밸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AI 대표 도시 사업을 ‘광주 1호 공약’으로 약속하고, 직접 현장방문까지 하는 등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예상되고 있다.

◇ **광주형 일자리 시즌 2…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 구축**=광주시민들은 노사상생형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이미 자동차를 양산 중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를 잇는 ‘광주형 일자리 시즌 2’를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도 올해부터 2030년까지 빛그린산단 및 특화단지 일원에 8조 1000억원을 투입해 미래 모빌리티 선도기반 및 부품산업 생태계 구축 등을 담은 ‘광주형 일자리 시즌 2’를 구상 중이다.

시는 미래차 소재·부품·정비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미래차 스마트 그린산단 100만평을 조성하고, 부품 모듈화 협동공장 등도 건립하겠다는 의지다. 또 차량용 전력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인공지능 기반 센서기술 고도화 및 미래모빌리티 전후방 연관산업 첨단화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모빌리티 센서 실증센터 구축 등 자율주행 순환도로 실증단지, 미래차 부품인증센터 구축 등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글로벌 수준의 미래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내 자동차 산업 100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선 ‘광주형 일자리 시즌 2’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를 상대로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 **미래도시 도약 위해선 광주 군 공항 이전 우선**=광주도심이 균형 있게 발전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심 한가운데 자리 잡은 광주 군 공항을 이전하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특히 군 공항은 국가 중요 국방시설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국가 책임 아래 추진해야 해결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는 신공항 건설, 종전부지 개발 등 이전 사업비로만 7조 34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현 군 공항 부지 매각만으로는 이전 재원 및 이전지역 지원비용 마련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여기에 광주 군 공항은 바로 옆 민간공항이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기로 결정돼 있어 군 공항만 단독 이전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군 공항·민간공항 이전을 놓고 한 뿌리인 광주와 전남의 갈등도 반복되고 있다.

결국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새 정부 대통령 임기 내에 이전문제를 해결하는 게 유일한 길이라는 게 광주시의 주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 광주 군 공항 자리는 광주 전체를 놓고 보면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면서 “광주 도심이 균형 잡힌 미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선 군 공항의 빠른 이전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일보70 창사 70주년
한전KPS
38th 社 창립 제38주년

세상을
밝히는 별빛같은 기업
한전KPS!

한전KPS가 사창립 3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고객의 사랑과 신뢰 속에 맞이한 사창립 38주년!
대한민국의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갈 것을 약속합니다.

세계 No.1 전력설비 정비산업 Grand 플랫폼 기업, 한전KPS

www.kps.co.kr